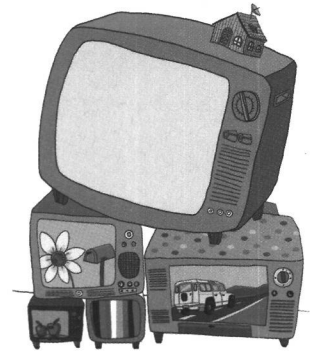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는 놀랍지 않다?

최원석 과학칼럼니스트

영화 <평행이론(2010)>은 인기 TV프로그램인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를 통해 알려진 ‘평행이론’이라는 독특한 소재를 다루고 있다. 평행이론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지만 같은 운명을 지닌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이 ‘에이브러햄 링컨과 존 F. 케네디’이다. 두 사람은 저격으로 사망한 미국 대통령이라는 것 외에도 많은 공통점이 발견되면서 도저히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려운 초자연적인 운명이 존재한다는 평행이론의 예로 많이 거론된다. 이와 같이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는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사람들의 흥미를 끌고 있다. 그렇다면 세상에는 왜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일까?



드라마 <옥탑방 왕세자>에는 조선시대에서 벌어진 사건을 해결하다가 현대로 소환되어 온 왕세자와 신하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3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 넘어 동일한 운명이 현대에도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평행이론’을 다루고 있기도 하다. 사실 평행이론이라는 용어를 잘 사용하지 않을 뿐 인물 사이의 신비한 공통점에 대해 알려진 일화들은 많이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링컨과 케네디 대통령의 경우 두 사람 모두 금요일에 부인 옆에서, 링컨은 포드 극장에서 케네디는 링컨 자동차에서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했으며, 부통령인 존슨이 뒤를 이었다는 등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히틀러와 나폴레옹, 클레오파트라와 양귀비도 비슷한 운명을 겪었다. 이 외에도 많은 유명한 인물들이나 일반인들이 마치 정해진 운명을 따르거나 환생을 한 듯이 비슷한 운명을 가진 예는 많이 있다. 그리고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 화제가 되었던 것에는 ‘데스티네이션 현상’도 있다. 데스티네이션 현상은 영화 <데스티네이션>과 같이 정해진 운명이 있어 운이 좋게(?) 죽을 고비를 넘기더라도 결국 죽을 사람은 죽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그 예로 제시된 것이 비행기 추락 사고를 모면했지만 결국 자

동차 사고로 숨진 여성의 이야기이다. 이 여성은 비행기로 여행을 떠나려고 했으나 길이 막혀 타려고 했던 비행기를 놓치게 된다. 하지만 그 비행기가 바다에 추락한 것을 보고 놀라 여행지를 바꾸지만 그곳에서 트럭에 치여 숨지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9.11 테러에서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2년 후 정확히 9월 11일에 감전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되는 사람의 이야기도 정해진 운명이 존재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든 사건이다.

이와 같이 우리 주변에는 도저히 우연이라고 보기 어려운 ‘기막힌 우연의 일치’가 많이 존재한다. 물론 이렇게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다고 이것이 초월적인 힘이나 정해진 운명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오히려 괴상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더 놀라운 일이다. 즉 세상에는 이상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 이것이 바로 ‘큰 수의 법칙(law of large numbers)’이다. 원래 큰 수의 법칙은 ‘경험적 확률(통계)’과 ‘수학적 확률’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표본의 수가 많아질수록 경험적 확률은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동전 던지기의 경우 앞면이 나올 확률은 1/2이지만 10번을 던질 경우 앞면이 5번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

다. 즉 앞면이 7번이나 때로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놀라운 경우도 생긴다. 이와 같이 표본 수가 작을 경우 확률과 통계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전을 수십만 번 이상 던지게 되면 확률과 통계 값은 거의 일치하게 된다. 이때 수십만 번 던진 동전의 앞면 기록을 살펴보면 앞면이나 뒷면이 연속으로 10번이나 나오는 것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표본 수가 크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도 반듯이 발생한다는 것이 큰 수의 법칙이다.

링컨과 케네디의 경우에도 100년의 시간차를 두고 놀라운 만큼 많은 것이 일치하지만 이는 두 사람 사이에 많은 데이터를 비교했기 때문에 이러한 공통점이 발견된 것 뿐이다. 따라서 충분히 많은 데이터를 비교하면 사람들 사이에는 평행이론을 주장할 수 있을 만큼의 많은 자료들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표적인 회의주의 잡지인 '스keptical 인콰이어러(Skeptical Inquirer)'가 실시한 세계 지도자들 사이의 공통점 찾기에서 케네디와 멕시코의 대통령 알바로 오브레곤의 공통점이 가장 놀라운 것으로 나타난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충분히 많은 표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마이클 드로스닌의 「바이블 코드(Bible code)」이다. 드로스닌은 이 책에서 성서를 행과 열을 맞춰 배열하면 9.11테러와 같은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예언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바이블 코드2」에서 아라파트의 암살이나 2006년 세계 대전과 같은 예언이 빛나가면서 한낱 흥미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드로스닌은 성경 속에 컴퓨터로만 해석할 수 있는 '코드'가 존재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컴퓨터가 있었기 때문에 방대한 자료 속에서 우연의 일치를 찾아낼 수 있었던 것 뿐이다. 따라서 옛날보다 최근에 더 많은 우연의 일치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데이터의 비교가 가능해졌

기에 놀라운 일들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

비행기 추락 사고를 피했다가 차량 사고를 당한 사람의 경우나 감전 사고의 경우에도 확률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기막힌 우연의 일치 앞에 인간의 이성은 거의 힘을 쓰지 못한다. 오히려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를 탐닉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미래에 대한 완전한 무지가 불안울 초래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모든 문명권에서 무당이나 점술 등이 나타난 것이다. 점술이나 예언이 미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를 뿌리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는 속담처럼 모든 우연의 일치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연관성이 있다고 믿는 편이 훨씬 마음이 편안하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아포페니아(apophenia)라고 하는데, 융(Carl Jung)의 동시성(synchronicity)도 이것의 일종으로 과학적으로는 아무런 근거는 없다. 아포페니아를 즐기는 인간의 속성 때문에 오늘날 <신비한 TV 서프라이즈>는 많은 시청자들의 눈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다. 